

주의 세례 축일

기도서 239 면(C해)
제1독서: 이 사 42,1-4. 6-7
제2독서: 사 도 10,34-38
복 음: 루 가 3,15-16. 21-22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가 3, 22).

□ 감 론



세례와 새 사람

법 석 규 신부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기념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사랑의 복음자리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런 인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세주를 약속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역할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야훼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인류와 계약을 맺으니 너는 만민의 빛이 되리라,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 묶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광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 주어라”(이사 42,6-7).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제실 때 성령이 내리시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 3,22)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세례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은총으로 보람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음”(사도 10,38) 같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캄캄한 영창속 같은 이 나라에 빛이 되어야 하고, 눈이 있어도 바로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오늘의 정국 속에서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보살피 주신 예수님처럼 부당한 권력에 짓눌린 자들 편에서 서서 그들의 신성한 인권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힘이면 만능으로 생각하는 오늘날. 힘에 의하여 자기와 자국민의 이익을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타국의 곤경을 못본 채 하는 그들의 비정함을 규탄하고 그들에게 정도를 알려주도록 부름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안에 새롭게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는 생활속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새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학교법인 해성학원)



감발을 하고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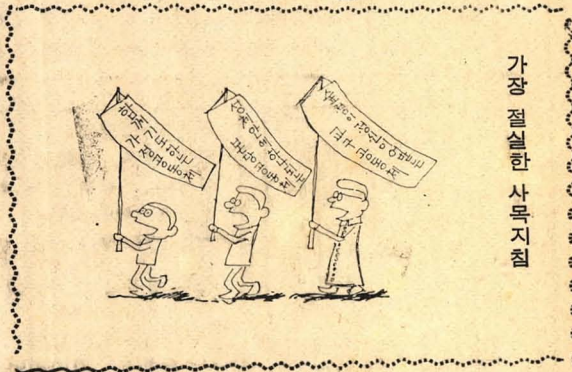
이래저래 벌벌 기는 거 하나야 자신있지.../시속 80은 낼 수 있으니까.../86, 88에.../기는 중목 추가하자!!(두꺼비)... 눈이 오는 요즘, 신문 만화들은 사람들이 설 설 기는 모습을 많이 그린다. 도로사정과 눈이 교통체증을 가중시켜서도 그러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 보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은 주눅이 든 모습이면서도 참새가 꺾하는 마당에서 신음하는 꼴이라서 더욱 그러하다.

반원이 된 시내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승객들이 곤두박질을 쳐도 소위 당국자인 운전기사는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를 제대로 안한다. 승객들도 너그러워서(?)인지 아무런 말도 없다. 신정 연휴때에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나 열차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한다. 손님은 왕이라는데, 왕은 고사하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받는 현실이다. 이는 어쩌면 손님들이 스스로가 사람되기를 포기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일에 숙달된 백성들이 우리의 우리인 모양이다. 왜 와야 하느냐고, 무엇때문에 가야 하느냐고 되물으면 소위 당국자인 힘센 사람이 “진방지다”고 나무라기 전에 옆에서 “조용하라”고 핀잔하며 말리는 사람이 더 많다. 반문(反問)해서는 안되는 세상,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새해가 밝았다. 신년 벽두부터 아무리 길이 미끄러워도 벌벌 기지는 말자. 길이 미끄러우면 새끼줄로라도 신발을 감고(감발)라도 반듯이 서서 걸자.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면 당나귀 귀라고 말하자. 성경말씀대로 검은 것은 검은다고 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하자.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세상은 파멸이 있을 뿐이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순정이 산책



가장 절실한 사목 지침

＝ 사도회(使徒會)에서 사목회(司牧會)로 ＝

1965년도에 폐막된 바티칸 제2차 공의회는 5년간의 각고 끝에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문을 남겼다. 9개 교령중 일곱번째 교령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① 그리스도 신자의 본질적인 소명 ②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의 참여 ③ 평신도들의 고유한 역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교구에서는 공의회 문헌에서 제시한 평신도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평신도 사도회 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에 준한 평신도들의 활동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이제 1986년을 맞이하여 평신도들의 업적을 토대로 하여 「평신도 사도회」에서 「사목협의회」로 체제로 바꾸어 보다 효율적인 본당 사목을 도모하게 되었다.

평신도 사도회와 사목협의회(司牧會)의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전자(사도회)는 평신도들의 신심 단체와 구역, 반회장님들의 모임에서 회장을 선임하여 본당신부님의 사목활동에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활동하였다면 후자(사목회)는 평신도 대표와 수도자와 성직자가 공동체를 이루어 협의함으로써 사목의 최대 효과를 보장하는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도회는 사도시대에 사도들의 협의체로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것이라면 사목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상호 협력기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제 탄생된 본당 사목회는 외적으로는 전과 크게 다를바가 없겠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주임신부님을 중심으로 하여 사목방향이 설정되고 추진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며 지구별로도 지구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 사목협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겠다. 사실, 교구 차원에서는 3년전부터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교구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교구 전체의 사목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교구장님은 이번 사목회 회칙을 인준하는 과정에서 본당단위 사도회는 별도로지가 있을 때까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구단위 평신도 협의회(平協)는 전과 같이 존립함으로써 교구 차원에서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제 우리도 과거의 사도회보다 한차원이 높은 사목협의회 체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본당 사목의 방향설정 및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간 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성서교실 36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

(루가 3: 21)

예수 전도 준비의 제1 즉 외적인 준비는 이제 끝났다. 세례자 요한은 민중으로 하여금 예수의 신(新) 복음을 듣게 하였다. 제2 준비는 내적인 준비로서 예수 자신의 준비이다. 그것은 예수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는 것, 그것이다.

그리스도가 죄가 없었다면 왜 그는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많은 설(說)이 있다. 많은 설 중에서 예수가 공생할에 들어가려는 찰나, 자기 생애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설. 또한 예수는 자기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설. 또는 광야의 유혹, 기체마니의 고통스런 기도, 십자가 상의 「엘리, 엘리 라마사박타니」가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 밑에 낳는 모든 사람과 같이 하기 위해서 죄가 없었지만,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설 등 여러 설이 있다.

예수의 세례는 요르단 강변에 있어서의 요한과 예수의 「응대」(應對)이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스런 「대결」인 것이다. 그것은 구약의 의(義)와 신약의 은혜와의 「입맞춤」인 것이다. 구약의 요한은 그의 의(義)의 관(冠)을 벗어, 복음의 군(君)께 무릎을 꿇었으며, 신약의 왕(王)은 스스로 낮추어 구약의 의(義) 앞에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불만한 「신성극」(神聖劇)이었던 것이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돌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 보리라」(시 85: 10-11).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 죄인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순적인 조건의 「십자가」가 예수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였다.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루리포니아)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 여러
 분에게 영가봉사
제일안경원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동-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초빙-교육개발원
 국민학교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담당할 여성을 몇분 초빙합니다.
 월급과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하며 담당업무는 순회교사 및 보조원으로 구분하고 순회교사로는 고졸이상 미혼여성이며 보조원은 가정주부로 자격제한은 없고 1월 15일까지임.
 연락처 75-5745 조웅준(요셉)
 태평동 1가 12-17(김혜진소아과 2층)



교 구 소 식

1. 재정참사회 : 14일 오전 10시30분, 교구청
2. 사목방문 : 16일, 교구청·센타·농장-오전 10시
3.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꾸리아 : 12일 오후 1시30분(삼왕뽑기 행사 있음)
장소-전통성당 사제관 2층
4. 야뉴스 어린이 합창단 : 수류천주교회 본당설립 90주년 기념음악회
일시-1월 19일(일) 오후 3시·7시, 장소-전북 학생회관
입장권 구입처-각 본당 사무실(1천원)
5. 신앙대학 특강 : 신앙인을 위한 기쁜 소식 ! ※장소-교육관, 수강료-각 2천원
마르코복음 해설 : 1월 19일 오후 2시~6시
현대교리 교수와 방법론 : 1월 20일 오후 7시~9시, 1월 21일 오후 7시~9시
영성신학 : 1월 22일 오후 7시~9시, 1월 23일 오후 7시~9시
교회론 : 1월 25일 오후 2시~6시, 바울로 사상 : 1월 26일 오후 2시~6시
6. M·E 12차 주말실시 : 17일~19일, 장소-광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 M·E 전주 구역개정-4일 교구장 인준
7. 성소자 동계폐정 : 18일(오후 3시 등륙)~19일. 주제-행복의 설계를 꾸미며
대상-중·고·대·일반(남자) 성소자 및 관심있는 분, 회비-5천원
장소-이서개발원(센타에서 18일 3시 출발), 지참물-미사·필기·세면도구
8. 교구 교리교사 정기 월례모임 : 13일 오후 5시, 가톨릭센타, 안전-동계연수회
9. 제4기 성서40주간 회원모집 : 일시-15일부터 수·목 오전 10시, 장소-센타
회비-월 2천원, 강사-김보나 수녀
10. 여성 제20차 꾸르실료 : 17일~20일까지 남성 제24차 꾸르실료 : 24일~27일
※ 희망자는 본당신부님과 상의 바람. 접수마감-1월 14일
11. 전화번호 변경 안내 : 나춘성 신부님 강원도 화천군 사내 257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부 신입생 모집 -우편통신의 성서교육

1.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 내용-신구약성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2년과정, 자격 :
고졸정도의 학력소유자(교과 초월), 구비서류-입학원서·증명사진 3매·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원서교부 및 접수-매년 1월~2월 7일까지
※ 원서 우송을 원하시는 분은 3,500원 소액환을 본 교육부로 보내주십시오
2. 성서증급과정 : 자격-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
3. 바울로 영성사상 과정 : 자격-바울로 서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모든 신자
*2와 3과정의 등록방법 : 별지의 신청서를 구입하여 등록금을 우편납부함
*입학원서 및 신청서 교부처 : 전국 성바오로서원 *문의처 : [132] 서울시 도
봉구 미아동 103 성바오로 여자수도회 내 시청각 통신성서교육부 ☎988-3812
전주 : 성바오로서원 ☎ 3-3398

※ 가정기도 시편 : 27편 독서 : 에베소 4 : 17-24 복음 : 루가 11 : 27-28

잡 간 !

우리 본당, 우리 본당...

교회는 한 공동체가 되도록 불만을 받았다는 공통의식과 서로의 친교안에 협력이 필
요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는 본당들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킬 필요성
을 절감케 한다.

어느 본당이나 그 살림이 풍족할리 없겠지만 신년도 예산에 농촌본당을 돕기 위한 예
산을 계획한다는 도시본당들의 흐뭇한 소식들 가운데, 군산 P본당에서는 85년도 남
겨진 이월금 전액을 가까운 이웃 본당에 몽땅 도와주었다는 소식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내 본당, 우리 본당... 그러나 도시본당과 시골본당이 여러가지 일에 실정에 맞게 서
로 도우는 일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태 22,39)"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
르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

요십이(649) 김병우

여성리차 꾸르실료는 언제할니까?
1월 17일부터

남성 24차는?
1월 24부터

여성리차는?
2월 2일

신살인 나는 남성 몇차 때 받을수있겠어?

초대합니다

수류천주교회 본당설립 90주년
야뉴스 어린이 합창단
기념음악회

일시 : 1986년 1월 19일(일요)
오후 3시, 7시

장소 : 전북 학생회관

예매처 : 각 본당 사무실
(1천원)

교형자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커피의 명문
*최고급 시설

신전커피숍

2-3962

이리 이도백화점 앞 2층

명성예식장

6-0416

주 김현식(바오로)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 전문의

전주시 경원동 1가 85

(판통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 2-7272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울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철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이 흥 재

1. 사도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님, 각 구역장님, 각 단체의 회장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부터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여성 제20차 꾸리실료: 17일~20일까지 본당참가자-이서순, 김경옥, 박옥혜, 이양자·박정선, 선배 꾸리실리스타들 많은 빨랑가 부탁드립니다
4. 본당 교직자 회의 연기: 15일 오후2시로 연기합니다
5. 예비자교리 안내: 일반인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직장인반-매주(화) 저녁 7시30분 부녀반-매주(수) 오전 10시 각 구역과 단체에서는 예비자 안내에 노력합니다
6. 초등부 교리교사 정기총회: 15일 오후 4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7. 85년도 교무금 속히 완납합니다: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86년도 교무금 속히 신입합니다
8. 금주의 전례담당: 제1조, 차주는 제2조 담당입니다
9. 아파트 요세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①교리교사 심성개발교육: 12일 오후 5시~9시
②초등부 피정: 3학년~6학년, 장소-본당 소성당에서, 16일 오전 9시~오후 5시, 회비-1천원 부모님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64,361원 신축금: 10,000원
교무금: 232,8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지난 12월 21일 영세하신 분들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강당에서
4. 예비자모집과 교리시작: 26일 공식미사 후 교리실에서, 예비자 한분씩 입고시킵시다
5. 어머니성가대 월례회: 24일 오전 11시, 강당
6. 학생회 정기총회: 19일 학생미사 후 선배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강당에서
7. 주일학교 방학: 어린이미사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관심 바랍니다
8. 금주정소: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차주정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9.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이기배 ②송영자
차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나병규 ②신영희

□ 지난주 봉헌금: 228,425원 교무금: 548,3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1. 금주전례: 해설-안현주, 독서-①양대환 ②여정진
봉헌-한동산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은수, 독서-①김봉룡 ②강성호
봉헌-문길석씨 부부
2. 금주 미사성가(공식미사)
입당-공동4, 가톨릭429, 복음전-공동63, 가톨릭40
봉헌-공동83.80, 가톨릭-54.510, 성체-공동347.422, 가톨릭-46.502, 퇴장-공동304, 가톨릭-477
3. 가정기도의 날: 매주 수요일
4. 여성 20차 꾸리실료: 17일~20일
의암-한영희, 수월-정소자, 많은 기도 바랍니다
5. 농악연수회: 20일~25일 오후 3시~5시
6. 본당화장단 1일피정: 28일 오전 10시~오후 5시
7. 우정의날: 29일 저녁, 예비자 초청

□ 지난주 봉헌금: 112,450원 교무금: 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사목회 임원 및 각반장님들 임시총회
2. 꾸리아 모임: 12일 오후 2시
3. 성심회: 13일 오후 2시
4.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학생회 총회: 11일 오후 7시
각 학생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6. 예비자교리 및 신청바랍니다
7. 사목회 임원명단: 회장-김낙균, 부회장-강기호·김광한·이정민, 전례분과위원장-김낙환·부위원장-남정호, 선교분과위원장-조정웅·부위원장-김광탁, 재정분과위원장-박형식·부위원장-김봉한, 사회복지위원장-박경환·부위원장-박중순·하영민, 교육분과위원장-김한기·부위원장-한상철, 청소년분과위원장-신영창·부위원장-강귀연, 구역분과위원장-함문권·부위원장-문치구, 애령분과위원장-김환용·부위원장-차상열, 여성분과위원장-윤성순·부위원장-윤정순, 홍보분과위원장-김진호·부위원장-송남용, 감사-오상팔·김남준, 교문-한형수·박장준·황인구

□ 지난주 봉헌금: 불우이웃돕기-187,740원
주일학교-6,970원, 일반·학생-310,880원
제-317,85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오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1. 사목회: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임원개편: 회장-김병오
부회장-신일균·고수창, 감사-이길섭·주낙천,
총무-김경철, 선교-김중성, 재정-유지현, 사회복
지-탁병락, 여성-이귀남, 전례-이준영, 교육-정
진우, 청소년-최병남, 애령-최병태, 홍보-은영은
※ 주님의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 수고하시겠습니다
3. 자모회: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해 주실 선생님들 찾
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일학교 교무실 (매주일 오후 3시)이나 보좌신부님께 상의 바람
5. 성화회·교미시음: 다음주
6. 소년꾸리아: 오늘 오후 1시30분, 사제관 2층
7. 중고생 특별교리: 13일~16일 오후 5시~7시
※ 동계수련회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다음주 봉헌담당: 임순달씨 부부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김종만,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중두 ②백중훈

□ 지난주 봉헌금: 918,830원 교무금: 577,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효자성당 월보 발간: 원고 모집합니다
2. 축하합니다: 새 남성 꾸리실리스타
이영우·김주영·강정구·김홍두·박수환
3. 신임 사무장: 임혜현(마리아)
4. 초청신부 강론: 19일 주일미사 중
왕수해 신부(광주 가톨릭대학 교수)
5. 예비신자 모집: 오늘부터 등록하세요
6. 건축현금: 최신실-10만원
7. 모임: 금주-글라라회
차주-성모회·울뜨레아

□ 지난주 봉헌금: 539,570원 교무금: 253,000원

